

장애인 명의 빌려 아파트 조직적 투기...경찰 전방위 수사

장애인단체 간부 매수 특별공급분 분양

67채 중 64채 당첨...프리미엄 받고 되팔아

광주경찰청, 분양 비리 포착

광주지역 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범들이 장애인 이름을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분양받은 뒤 일반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전매차익)을 받고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 악용 뎀 분양경쟁률과 프리미엄이 오르면서 아파

트 수요·공급질서를 해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감안, 광주지역 특별공급 분양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과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범들이 지난해 광주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장애인 명의의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한 채당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거액을 챙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택법(제38조·39조·41조)상 장애인 특별분양은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에서 일정 부분(10% 범위) 장애인을 위해 할당된 분양분으로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다.

부동산 투기범들이 지난해 1410세대 규모(연 면적 22만1029㎡)로 조성된 A아파트 특별공급분 청약에 장애인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신청해 당첨되자 이를 일반 분양자에게 되팔아 한 가구당 수천만 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은 23.8대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공급분은 2.1대의 경쟁률로 일반분양률보다 10분의1

수준도 안되는 경쟁률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범들은 광주도 장애인단체 간부들을 통해 소속 장애인 한 명당 서류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고 수십 명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이름으로 아파트가 당첨되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해당 장애인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부동산 투기범들이 광주도 장애인단체의 간부들을 매수, 소속 단체의 장애인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분 67채 중 64채를 분양받은 뒤 상당수를 일반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

이는 장애인들을 불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서류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또 부동산 투기범들이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분양받는데 이 장애인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다른 장애인단체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애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 같은 분양비리가 다른 곳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양 당시 수백만~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5·18 당시 동참 호소 마지막 방송 박영순씨 35년만에 재심 청구

“자녀들에 땀땀하고 싶다”

5·18 광주민중항쟁 마지막 날인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56)씨가 35년 만에 당시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4일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 30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도청 진입 직전에 광주시민에게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방송을 했다. 그는 당시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당시 21세) 학생으로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 총칼에 숨겨지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계엄군과 끝까지 싸우시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다.

방송 세 시간 뒤 도청으로 밀려들던 진압군에 의해 시민군은 처절하게 쓰러졌고 박씨도 붙잡혔다.

박씨는 같은 해 10월 25일 당시 김대중 내란 음모에 가담한 혐의(계엄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박씨는 “재심 청구 절차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면서 “35년이 지난 만큼 내 자녀들에게 땀땀하게 5·18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당첨률 높아 전매차익 노린 투기꾼 몰려

광주에서 장애인·저소득층·복합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에만 공급되는 아파트 특별공급분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투기꾼들이 장애인들을 이용, 특별공급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4일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개 구청에 분양모집 공고낸 아파트는 모두 67개 단지다.

분양세대 수는 2만1733세대로 이중 특별공급분은 전체의 19.92%인 4330세대다. 구별로는 ▲동구 5개단지(3013세대 중 834세대) ▲서구 4개단지(1529세대 중 317세대) ▲남구 14개단지(3877세대 중 938세대) ▲북구 22개단지(6992세대 중 1611세대) ▲광산구 22개단지(6322세대 중 630세대) 등이다.

투기꾼들이 특별공급분을 받으려는 이유는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아 분양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 A아파트의 특별공급분 경쟁률은 2.1대1로 일반분양률의 1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당첨확률이 매우 높은 특별공급분이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투기꾼들은 돈이 되는 아파트, 소위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만을 골라 수십 명의 장애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해당 장애인에게 100만~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일반인에게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긴다.

투기꾼들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들이 사례비 명목으로 제시하는 몇 푼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이들에게 접근,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분양비리를 조직·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셈.

문제는 투기꾼들이 장애인 이름을 빌린 뒤 한 아파트에서 많게는 수십 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미엄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례비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분양신청자들 때문에 처음부터 당첨기회를 박탈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종행기자 golee@



소화기 사용 이렇게 하세요

광주시 북구는 4일 광주역에서 제22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화재 예방과 설 명절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이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허위 세금계산서 등 추가 기소

이홍하씨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교비 등 900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홍하(77)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4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

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이홍하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390여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2억4000만원 상당의 조세 포탈, 재단 직원 수십명의 임금(5억3000만원)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지웅기자 dok2000@

서창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형 확정 전 피선거권 제한

광주지역 최다선 농협 조합장인 배인수(59) 서창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등 임원 경력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16년째 서창농협을 이끌고 있는 광주지역 최다선 조합장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돼왔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4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배씨는 농업협동조합법(49조)에 따라 4년간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배씨는 서창농협 이사 선거를 4일 앞둔 지난해 1월 24일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집을 찾아가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떨까요?”며 현금(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를 조합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10만원이긴 하지만 임원 후보자 사퇴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지웅기자 dok2000@

11층 투신 고교생 큰 부상없어 ‘기적’



○~여자친구를 찾아 갔지만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린 고교생이 화단에 심어진 나무에 떨어지면서 어깨뼈만 골절되는 등 구사일생.

○~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19)군은 이날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J아파트 11층(높이 25m)에서 뛰어내려 화단에 추락, 조정을 위해 심어놓은 나무와 부딪혀 속도가 줄고 겨울철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 자라있던 잔디밭이 완충작용을 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


○~추락한 뒤에도 정신을 잃지 않았던 A군은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을 발견하고 “살려달라”며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A군은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결별 선언을 듣고 집까지 찾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순간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진술.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급매” 합니다 투자 가치 좋습니다

직매. 010-3605-5000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1층 - 41평, 상가
2층 - 46평,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뒷밭, 도시가스, 전체 울 수리



2월 6일까지
5억8천 만원

